

‘여수만 르네상스’ 여수시민 70%가 안다

지난 6~11일 시민 1045명 대상
사업 적절성도 절반 이상 긍정
‘잘 모르겠다’ 응답 27% 그쳐
“여수 미래 시민과 그려가겠다”

민선 8기 정기명 여수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 시민 7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시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여수시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시 누리집 시민소통광장 남녀 시민 패널 6650명을 대상으로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질문은 ‘여수만 르네상스 인식도’와 ‘5개만 추진과제 적절성’, ‘정주여건 개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 등 총 11개로, 1045명의 패널이 답했다.

여수만 르네상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조사에서는 “들어본 적 있다”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잘 알고 있다(20%)”와 “매우 잘 알고 있다”(11%)고 답한 응답자까지 합하면 응답자의 73%가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르겠다”와 “전혀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불과했다.

특히 ‘5개 만별 실행과제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21%)와 “약간 그렇다”(18%) 등 응답자의 7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수만 르네상스 핵심 목표로는 ‘관광

자원 개발’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제·산업 발달’(20%), ‘기후환경보호’(18%), ‘정주여건 개선’(15%), ‘일자리 창출’(14%), ‘문화·예술기반 확대’(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경제문제’(38%)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바가지요금 근절’(41%)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

는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수의 미래 100년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신규 과제 발굴과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관련한 설문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사회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원도심권 노인복지관’ 명칭 공모… 내달 4일까지

여수시는 관문동 861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내달 4일까지 공모한다.

시는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특징에 부합하는 누구나 부르기 쉽고 친근한 이름을 선별하되, 여수시 원도심권의 특색을 내포한 창의적인 명칭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주조지와 관계없이 공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여수시청 누리집(www.yeosu.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061-659-5821) 또는 전자

우편(alwls508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내부 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고, 10월 중으로 여수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선작에는 최우수상(1명) 40만원, 우수상(1명) 20만원, 장려상(3명) 10만원 상당의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공간이 될 원도심권 노인복지관의 새 이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소비자 피해 예방

여수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15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영점 확인 및 법정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전기식 지시저울 △판수동 저울 △판지시 저울 △접시지시 저울 등이 해당된다.

저울 보유자는 일정에 맞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우천 등으로 해당 날짜에 검사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합격 판정받은 계량기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이 중지되며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은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061-659-360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라며, 정기 검사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내일부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여수시는 체납액 징수를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24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시에 따르면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 주요 도로,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차량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체납세액의 분할납부를 유도



하고, 영치를 보류하는 등 납세 편의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보건소는 지난 12일 여수전남병원에서 병문안 문화개선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보건소 ‘병문안 문화개선 홍보활동’

여수시보건소가 최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병문안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여천전남병원과 여수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여수한국병원에서 병문안객과 환자, 의료진 간 감염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확인하기(방문 가능 시

간, 허용 인원, 장소) △자제하기(감염성 질환자·노약자 방문 자제) △지켜주기(병문안 전후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병문안 3대 원칙을 병원 방문객에게 중점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여수전남병원 정종길 병원장은 “코로나19 단계가 하향되면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나,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도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이 병

문안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은 기본적인 위생 수칙이 지켜질 때 가장 효과적이며, 병문안뿐만 아니라 집단모임이 있을 때도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보건소는 의료기관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병문안 준수 사항을 홍보하고 있으며,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등에도 홍보활동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인구감소대응 전담팀 발족… 주거·교육·생활 등 35개 핵심 사업 추진



여수시는 지난 19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대응 전담팀을 발족하고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저출생,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최정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감소대응 전담팀(TF)을 발족하고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 최 부시장과 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부서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주거·경제·교육·생활 등 정책 수요

자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비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략적 택지 조성, 국가산단 입주업체 사택 재개발 방침 등 35개 핵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확대, 여수여행 터미널 조성(YEOSU ROUNGE) 등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인구를 사로잡고, 오케스트라 인재 육성 특화사업, e스포츠 청소년 스킨 등 청년층 문화예술행사 다양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정기 부시장은 “인구감소 대응과 아울러 인구유지를 위한 대책도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여수형 인구정책을 다방면으로 발굴해 더 나은 여수를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여수=이경기 기자